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6.5.4~2026.5.12

출장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장자: 구형수, 김승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오스트리아(비엔나)

2. 출장기간: 2024.05.04.~2024.05.12. (7박 9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도시연구본부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구형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승기	

4. 출장목적

□ EGU26 학회 참석을 통한 자연기반해법 연구결과 발표 및 최신 국제 연구 동향 습득

- EGU26 학회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수행
- 자연기반해법(NbS), 하천복원, 홍수관리, 수문·수리·수생태 분야의 최신 국제 연구 동향 및 기술 발전 현황 파악
- 국제 연구자들과의 연구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 고도화 전략 마련
- 학회 발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과업 수행 결과의 완성도 제고 및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 활용

□ 국외 하천관리 정책·기술 사례 조사 및 전문기관 간 지식 교류 수행

- RiverWatch 방문을 통해 자연하천 보전, 하천복원, 시민참여 기반 하천관리 활동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조사
- viadonau 방문을 통해 도나우강의 항로·홍수·환경·생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하천관리 정책 및 운영 체계 파악
- 기관별 조직 운영 방식, 주요 사업, 정책 추진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업무 협의 수행
- 유럽 하천관리 선진사례 조사 및 국제 협력·정보교류 기반 마련

□ 도나우강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 공간 및 수자원 시설 관리 현황 조사

- 도나우강 일대의 친수공간, 자연 범람원, 제방 및 홍수방어 시설 현장 조사 수행
- 하천 공간 활용 현황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수변공간 관리, 생태 보전 및 치수 기능이 연계된 유럽 하천관리 사례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해 국외 대하천 관리 방식 및 수자원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하천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5월4일 (월)	인천	비엔나	(10:40) 인천 출발 - 대한항공[KE937] (16:20) 비엔나 공항 도착	
5월5일 (화)	비엔나		(09:00-18:00) 학회 등록 및 참석	
5월6일 (수)	비엔나		(09:00-14:00) 학회 참석 및 연구자 교류 (14:00-18:00) 학회 참석 및 발표	
5월7일 (목)	비엔나		(09:00-15:00) 학회 참석 및 연구자 교류 (15:00-18:00) 업무협의 준비	
5월8일 (금)	비엔나		(09:00-10:00) RiverWatch 방문 - 기관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논의 (10:30-12:00) viadonau 방문 - 기관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논의 (13:00-18:00) 학회 참석 및 연구자 교류	RiverWatch (Cornelia Wieser, Chief financial officer) viadonau (Petra Marktl, Team Leader)
5월9일 (토)	비엔나		(09:00-12:00) 현장 답사를 위한 업무 협의 (13:00-18:00) 도나우강 Donauinsel 인근 현장 답사 - 친수공간 및 홍수방어시설 조성 현황 조사	
5월10일 (일)	비엔나		(09:00-18:00) 도나우강 도나우 아우엔 국립공원 - Eingang Wien-Lobau 인근 현장 답사 - 도시 인근 자연 범람원, 습지 특성 조사	
5월11일 (월)	비엔나		(09:00-14:00) 현장 답사 결과 정리 및 업무협의 (14:00-16:00) 비엔나 공항 이동 (18:30) 비엔나 출발 - 대한항공	
5월12일 (화)	인천		(12:30) 인천 공항 도착(5.12)	

III. 수행사항

1. EGU26 학회 참석 및 발표

☐ 개요

- 일시: 2026. 05. 05. (화) ~ 2026.05.08. (금)
- 장소: Austria Center Vienna
- 목적: 해외 연구 동향 습득, 연구결과 발표 및 연구자 교류

☐ 참석자

- (국토연구원) 구형수 연구위원, 김승기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수리·수문, 하천 복원 및 자연기반해법 관련 세션 참석 및 연구 동향 파악
 - 세션: Deep Learning in Hydrology
 - Shan et al.(2026)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s)의 수자원 실무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함. 대규모 언어 모델과 수문 해석 모형을 결합한 지능형 홍수 예측 에이전트(Intelligent flood forecasting agent)인 ‘HydroAgent’에 개발 경과에 대해 소개함.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수문 모의에 관한 조건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서술식으로 입력하면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Chatgpt, Claude, Deepseek, Gemini)을 활용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함. 모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 5개의 확인 단계를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모의를 수행한 후 대규모 언어 모델 환경에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함. 이 프로그램 구축 결과는 수자원 실무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
 - Sholz et al.(2026)은 수문학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함. 다변량 시계열 수문 데이터를 활용하며 예측 변수와 목표 변수를 교대로 추론할 수 있도록 모델을 훈련함으로써 어떠한 변수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더라도 그 외 변수를 활용하여 예측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함. 연구 결과 파운데이션 모델이 수문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며 자원 효율적으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함



발표 현장 사진

- 세션: Rivers in a changing world: Morphodynamic processes, infrastructure impacts, restoration, and management
- Kumar et al.(2026)은 메콩강 삼각주에서의 지속적인 골재 채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골재 채취 전략을 제시함. 3차원 수리모형(Delft3D-FM)을 활용하여 메콩강 삼각주에서의 동수역학, 유사이송, 염수 침입,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음. 모의결과 2017~2021년 동안 총 250Mm³의 퇴적물 손실을 예측함. 퇴적 양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채취 구역(Sustainable Mining Zones, SMZ)을 제시. 연간 4.9Mm³ 정도로 채취할 경우 지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연간 9.9Mm³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Richard Mason(2006)은 훼손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reset(초기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방향이 하천의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함. 대상 하천은 영국의 River Aller이며, 이 하천은 유럽 최초로 Valley-floor reset이 이루어진 하천임. Valley-floor reset은 기존 하도를 매립하고 범람원을 재성형하여 수리지형학적 프로세스가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되게 하는 하천 복원 개념임. 이는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 하천이 스스로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추진됨. River Aller의 경우 단일 수로에서 넓고 얇은 다중 수로 형식으로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 저장능력은 1,156%가 증가하였고 지하수위는 계곡 전역에서 평균 0.8m 상승하였음을 확인함. 이는 해당 복원 방법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Landen Matechuk(2026)는 Beaver Dam Analogs를 활용한 하천 복원 가능성에 대해 발표함. Beaver Dam Analogs는 비버댐 모방 구조물로, 비버댐이란 비버라는 동물이 하천에 나뭇가지, 통나무, 진흙 등을 쌓아 만든 둑 형태의 구조물임. 위성영상 및 현장조사를 활용하여 비버댐의 위치 자료를 수집하고 경사, 고도 등의 환경 변수 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축함.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비버댐 설치 위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형·수

문 조건(낮은 경사, 높은 수계접근성 등)에서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후 수로 실험을 통해 비버댐이 하천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홍수 위험 평가를 실시함

- Martin et al.(2006)은 하천에서의 대형 통나무의 존재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함. 영국 내 4개 복원 대상지에서 2년간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대형 통나무 복원 기법이 지형 변화와 수리학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드론 기반 LSPIV와 RTK, Leica GNSS를 활용하여 유속과 지형을 모니터링 하였음. 분석 결과 대형 통나무가 유속 변동성을 크게 상승하고 퇴적과 침식 양상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함. 특히 고밀도 및 다공성의 대형 나무 구조물은 국지적 규모에서 수리·지형 변화가 더욱 증폭됨을 확인함



발표 현장 사진

- 세션: Emerging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in water resilience and risk science: society-ecology-freshwater nexus approaches and socio-meteorology

- Usai et al.(2026)은 기후변화가 아마존 강과 범람원,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전략을 제시함. 3개월간 아마존 유역의 공동체 대상 인터뷰, 참여형 지도 제작 기법, 수문·지형 원격탐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함. 그 결과 과거 가뭄이 공동체의 생계(어업, 농업, 상업)뿐만 아니라 항해, 식수 접근성,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함

- 세션: Integrated Approaches to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in Urban Areas
 - Medenica et al. (2026)은 블루-그린 인프라가 도시 수변공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연구는 유럽의 두 도시인 Podgorica(Montenegro)와 Reykjavík(Iceland)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변공간의 공간적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기반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체감, 이동 패턴, 공간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함. 연구 결과 Reykjavík의 경우 산업 지역이 주거형 수변공간으로 재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가장자리에서는 체류 활동이 낮음을 확인함. 반면 Podgorica의 경우 생태적 잠재성은 높지만 공공 공간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공업 건물로 인해 강변 접근성이 단절되어 수변공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는 블루-그린 인프라가 수변공간의 미시적 기후에 영향을 끼치며 수변공간의 활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함
- 세션: Hydrological forecasting in human-influenced catchments
 - Shah et al.(2026) 은 파키스탄 Khyber Pakhtunkhwa 지역에 있는 Swat River 유역에서 2014년 시행된 대규모 조림 사업인 Billion Tree Tsunami(BTT)가 홍수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1990~2024년 기간 동안 토지이용-피복 변화 및 유출량 자료를 구축하고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반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2050년의 수문 조건 변화를 예측함. 분석 결과 산림 면적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나지는 감소하였으며 농경지 이용에도 변화가 나타남. 또한 조림 사업 이후 침투유량이 약 15% 감소하고 유출 증가율 또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해당 연구는 대규모 조림 사업이 홍수 위험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머신러닝 기반 접근법과 기존 수문모형의 통합이 유역 관리 전략 고도화에 유용함을 제시함
 - Jiang et al.(2026)은 다층적 자연기반해법의 물리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GPU 가속 모델링 기반 천수방정식 해석 프레임워크인 HiPIMS-NbS를 제시함. HiPIMS-NbS는 2차원 도메인에서 자연기반해법과 지표면사이에서 동적 흐름 해석을 수행함. 해당 모델은 SWMM 결과와 현장규모의 실험결과를 통해 검증됨. 도시 규모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 뉴캐슬 어폰 타인에서 2012년 발생한 홍수를 고려하였으며 다양한 자연기반해법 도입 시나리오(저류지, 빗물 정원, 혼합 적용)에 대해 모의함. 연구결과 도시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연기반해법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함을 제시함

- 세션: Integrated Approaches to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in Urban Areas
 - Mihika et al.(2026)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연기반 해법의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2015년~2025년 사이 문헌 83편을 분석한 결과 기존 기존 연구들이 자연기반해법의 효과를 유출량 감소에만 치중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린-그레이 인프라 간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급격한 파괴를 지연시키는지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도구가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수리학적 거동과 연계한 회복탄력성의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함
- 세션: Green Infrastructure and Nature-based Solutions for Sustainable Urban Hazard Management
 - Chen et al.(2026)은 중국 푸젠성(Fujian Province) Yong'an City 상류의 Baxi River 수원보호구역 내 Shangshi Village 산지하천을 대상으로, 전통적 하천 정비 방식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복원 방안을 제시함. 연구 대상지는 우수한 수질과 높은 수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토착 어종의 회유가 활발한 지역임. 그러나 제방 경화(bank hardening)와 하상 정비(riverbed grading)를 중심으로 한 홍수 방어 사업 이후 흐름 구조가 단순화되었고, 이에 따라 어류의 회유 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에서는 어류 회유에 적절한 수심, 유속, 하상 재료, 다양한 흐름 경로 및 수리학적 자극(hydraulic cues)이 중요함을 강조함. 이를 위해 UAV 기반 항공촬영, 유량·유속·수심 측정을 포함한 수문조사, 하상 및 하안 식생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문·수리 분석과 연계하여 사석(riprap) 구조물과 식생공법을 결합한 복원 방안을 제안함. 해당 접근법은 하안 지형을 복원하고 흐름 및 서식처 다양성을 증진하는 자연기반해법이 하천 생태계의 통합적 복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함
- 세션: Nature-based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Wu et al.(2026)은 동수역학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에서의 자연기반해법 적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대만 타이난시에서 40,147개의 비정형 계산 격자를 사용하여 지형 기반의 배수-침수 모형을 구축하였음. 기후변화에 대한 3가지 적응경로 시나리오를 수립함. 첫 번째는 개발 구역 내 그린 인프라시설 중심의 자연기반해법, 두 번째는 상류 농경지를 활용한 홍수 저류, 세 번째는 그린 인프라시설과 농경지 홍수 저류를 함께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자연기반해법임. 분석 결과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작은 토지면적으로도 상당한 홍수 완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음

■ 세션: Nature-based and community-led strategie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ecosystem restoration (land, water and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socio-ecological systems

- Chuang and Liu(2026)는 자연기반해법과 지역사회 주도 적응 접근 방식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위험 경감효과에 대해 분석함. 대만 Yilan 해안지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지역의 경우 폭풍 해일, 파랑, 하천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장기 현장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인터뷰, 해안 계획 및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세가지 보호 방안을 수립함(1) 엔지니어링 중심의 구조적 방어, (2) 엔지니어링 접근법과 자연 완충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 (3) 지역 거버넌스와 토지이용 적응 정책이 결합된 지역사회 주도 자연기반해법 적용 방안) 분석 결과 지역사회 주도 자연기반해법이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확인함

○ 연구결과 발표

- 세션 「Green Infrastructure and Nature-based Solutions for Sustainable Urban Hazard Management」에서 자연기반해법 적용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와 서식처 복원 효과 분석에 관한 주제로 발표함. 기존 자연기반해법의 입지 검토 과정에서 홍수저감 효과와 서식처 복원 효과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드문 상황으로 본 연구는 구례군 서시천을 대상으로 각 영향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임
- 질의 응답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 방안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하천 주변에 농경지 및 가옥으로 활용되는 부지를 변경하여 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홍수량을 저류지가 일부 분담하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 효과에 관한 의견을 교류함. 또한 홍수저감 효과 분석 기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HEC-RAS 모형을 활용하여 저류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검토 하는 방법과 저류지 면적과 용량의 설계에 관한 의견을 교류함



EGU26 발표 사진

2. RiverWatch 업무협의회

☐ 개요

- 일시: 2026. 5. 8. (금) 09:00~10:00
- 장소: RiverWatch 사무실(Neustiftgasse 36, 1070 Wien)
- 목적: RiverWatch 기관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정보 습득

☐ 참석자

- (국토연구원) 구형수 연구위원, 김승기 부연구위원
- (RiverWatch) Cornelia Wieser Chief financial officer
- (통역) 송승은 통역사

☐ 주요 내용

- RiverWatch 기관 개요
 - RiverWatch는 전 세계적으로 하천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이며, 특히 댐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주로 함
 - RiverWatch는 2012년에 독일 출신의 생태학자인 Ulrich Eichelmann에 의해 설립됨. Ulrich Eichelmann은 2007년까지 17년 이상 WWF Austria에서 근무하며 하천 복원 및 복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후 보호 사업의 역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Clime Crimes’를 제작하였고, 2012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둔 RiverWatch를 설립함¹⁾
 - 본 업무협의회 참석자인 Cornelia Wieser는 RiverWatch의 CFO이며, 2013년 2월부터 RiverWatch에서 근무해오고 있음. 현재 ‘Save the Blue Heart of Europe’라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Riverwatch 캠페인 추진 현황
 - ‘Save the Blue Heart of Europe’은 발칸 반도에서 댐 건설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현재 RiverWatch의 대표 캠페인임. 발칸반도 지역은 다른 유럽 지역과는 달리 자연상태의 하천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칸 반도의 35,000km의 하천 중 80%가 매우 우수하거나 우수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30%는

1) 출처: <https://riverwatch.eu/>(2026.6.5. 접속)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오직 발칸 반도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어종 69종이 확인되었으며, 유럽 전체 멸종위기 패류 및 복족류의 40%가 발견됨. 그러나 현재 이 발칸 반도 지역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서구 기업들의 지원 하에 2,80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라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환경 단체인 EuroNatur와 각 발칸 국가의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발칸 반도의 댐 건설을 막기 위한 캠페인 ‘Save the Blue Heart of Europ’ 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캠페인은 현재 4곳의 지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활동 추진 중 (비요사 강(알바니아), 마브로보 국립공원(마케도니아), 사바 강(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강)
- 해당 캠페인에서 비요사 강 대한 댐 건설 반대 활동을 하였는데, 해당 활동으로 인해 알바니아 정부는 댐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야생 하천 국립공원(the Vjosa Wild River National Park)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함.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해당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였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천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단을 촉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해당 문제를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캠페인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음. 국제적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국제법 제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가 간 소송 등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소송의 경우 8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함. 기자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 결과나 불법적인 댐 건설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음. 과학자의 경우 발칸 지역에 연구센터를 세워서 과학자들이 생활하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소송에서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대중에게 연구 결과의 홍보로도 활용하고 있음. 예술가들은 대중에게 감성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 수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태양열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위주의 발전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발칸 지역의 관광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eco-tourism, soft-tourism의 방향이 적절할 것이며, 유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환경을 수호하고자 하기 때문에(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강을 보호하는데 찬성) 환경 보존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3. viadonau 업무협의회

☐ 개요

- 일시: 2026. 5. 8. (금) 11:00~13:00
- 장소: viadonau
- 목적: viadonau 기관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정보 습득

☐ 참석자

- (국토연구원) 구형수 연구위원, 김승기 부연구위원
- (viadonau) Petra Marktl Team Leader, Alice Kaufmann Senior Project Manager, Simon Hartl Head of Team Waterway Management, Winfried Furst Head of Flood Management Project
- (통역) 송승은 통역사

☐ 주요 내용

- viadonau 기관 개요
 - viadonau는 오스트리아의 연방수로법(the Federal Waterways Act)에 따른 고유 임무를 수행하며, 도나우 강의 수자원 시설의 건설 계획, 예산 배정 및 관리. 도나우강의 홍수 조절, 환경 관리,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과 시행 등을 수행
 - 수문 데이터를 측정, 수집, 후처리 과정을 담당하며 이를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에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핵심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내륙 수운 교통발전을 위한 개발 과제 또한 수행함
- viadonau의 수로 관리 수행 현황
 - viadonau의 수로 관리 팀(Team Waterway Management)에서는 도나우강의 수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첫 번째는 도나우강의 기반시설 관리 기준 수립과 유지관리의 시행, 두 번째는 항로 유지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수로 자산관리시스템(WAMS: Waterway Asset Management System)의 운영, 세 번째는 비엔나 동부의 하상 침식 저감을 위한 유사량 관리 업무, 네 번째는 도나우강의 가항성 상승을 위한 수제 등의 수공 구조물 계획 수립 및 시행, 다섯 번째는 항로 마킹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최적화·현대화 사업 추진, 여섯 번째는 정기 수상 모니터링, 순찰점검 수행, 일곱 번째는 항

로 상태 및 저수심 구간에 대한 정보를 DoRIS(Danube River Information Service)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이 있음

- 오스트리아 관할 도나우 강의 공간적 범위는 길이는 350.45km에 해당하며 자유 흐름 구간은 90km, 구조물의 영향을 받는 구간은 260km로 분류되며, 10개의 갑문이 있음
- 수로 관리상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 자유 흐름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 단면과 높은 유속으로 인해 항행 및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음. 전단응력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유사가 퇴적되어 수심이 낮아지는 구간이 형성됨. 수심이 낮은 구간을 대상으로 월 1회~2회의 주기의 측량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수문 통계에 근거하여 저수기 시기가 오기전에 낮은 수심 구간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음
- 수로 유지관리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단계의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기준을 수립함. (LoS 1, LoS 2, LoS 3의 3가지 단계가 있으며 선박이 단일 또는 교차로 운행 가능한 항로의 폭과 관련된 등급임. LoS 3가 가장 항로 폭이 넓음)
-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강 위에 떠 있는 부표 및 등표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있음. 부표가 원래 위치에 있는지, 배와 부딪혔는지, 조명은 정상작동하는지, 배터리는 충분한지에 대해 본부 관제실 및 모바일 앱이 연동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 중임

○ viadonau의 홍수 조절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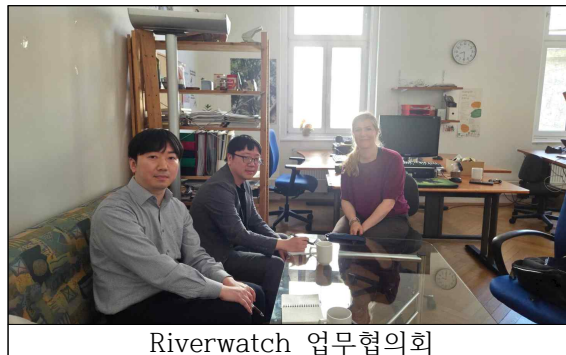
- viadonau의 홍수 관리 활동으로는 홍수량의 안정적 배수를 위한 홍수 방어 대책의 수립, 홍수 피해 방지 대책, 긴급 홍수 대응 및 관리 활동, 홍수방어 시설의 복구가 있음
- 비홍수기 시의 활동은 일상적 업무로 홍수방어시설의 유지보수, 검사, 기능 점검, 안전성 확인이 있으며, 긴급 홍수 대응 및 관리 활동에서는 수위 모니터링, 지역 기관 및 응급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한 홍수 대응 활동을 수행
- 담당하는 홍수 방어 구간은 Morava 및 lower Thaya 지역(약 75km)과 도나우지역(약 300km 구간, 홍수 시는 약 162km 구간)이며, 각각 홍수 방어 협회와 도나우 홍수통제청에서 위탁받아 홍수 방어 업무를 수행
- 9개의 수위 모니터링에서 실시간 수위를 관측하고 있으며,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어 저수기(5일)나 홍수기 시(2일)의 수위를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
- 수위관측소의 수위에 따라 홍수 긴급 대응 수준을 결정. 홍수 긴급 대응은 4단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4단계는 사전 주의 단계(Early warning stage), 경보 단계(Alert), 홍수 긴급 대응 1단계(Flood Emergency Response Stage I), 홍수 긴급 대응 2단계(Flood

Emergency Response Stage II)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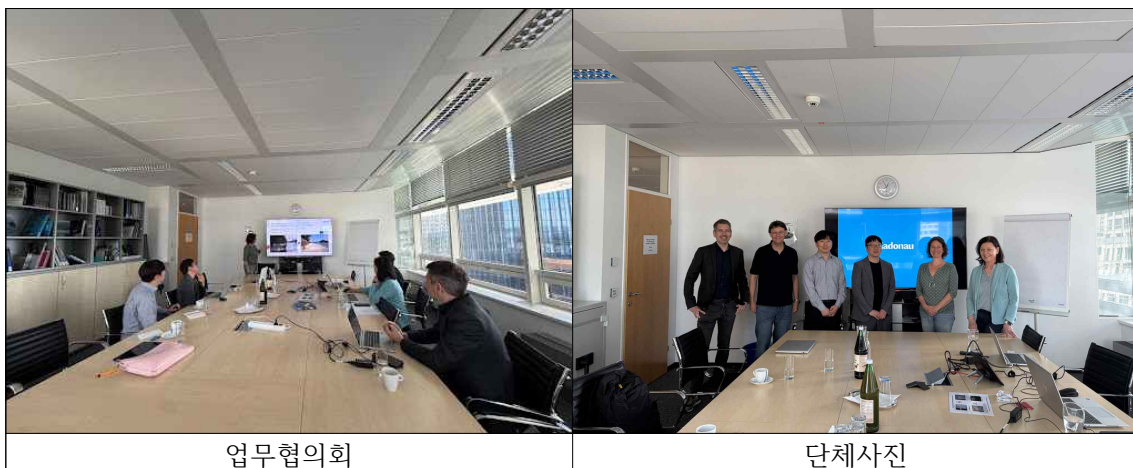
- 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viadonau에서는 기상예보, 수위 상황, 수위 예측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홍수방어 시설의 기능 점검을 강화함
- viadonau에서 수행하는 홍수 방어 활동으로는 모래주머니, 이동형 홍수 방어 시스템, 지역 자원 봉사자 및 연방 부대의 지원이 있음
- viadonau는 100년 빈도 이하의 홍수량에 대해 홍수 방어 활동의 책임이 있으며, 100년 빈도 초과의 홍수량에 대해서는 지역 당국이 홍수방어의 책임이 있음

○ 업무협의회 사진

- RiverWatch



- viadonau



4. Donauinsel 현장 조사

□ 개요

- 일시: 2026. 5. 10.(토) 09:00~18:00
- 장소: 도나우강 Donauinsel 현장 조사
- 목적: 도나우강 Donauinsel 일대 현장 조사 수행을 통한 국외 하천 공간 활용 방식 및 홍수방어를 위한 수자원 시설 운영 현황 파악

□ 주요 결과

- Donauinsel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를 흐르는 도나우강에 조성된 사이에 조성된 인공섬으로 홍수방어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1988년까지 건설되었음
 - 건설 과정에서 인공섬을 4~6m 높이로 쌓아 올리는데 총 2,820만 m³의 토사가 사용되었음
 - 도나우강과 노이에 도나우강(Neue Donau, Donauinsel 북측에 흐르는 강)의 홍수량 분배 조절을 위해 상류 랑엔체르스도르프(Langenzersdorf) 인근에 가동보를 설치하였음
 - 이 가동보는 홍수 시 개방되어 최대 5,200m³/s의 물을 통과할 수 있으며 이는 극단적 상황에서 본류의 수위를 최대 1m 가까이 낮출 수 있음. 도나우강과 노이에 도나우강을 합하면 초당 최대 14,000m³/s의 물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000년 빈도에서 5,000년 빈도의 대홍수에 해당함²⁾
- Donauinsel 일대 현장조사 결과 다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노이에 도나우강 북측에 있는 카이저뮐렌 지역은 업무지구 및 대형 녹지공원(Donaupark)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과 방문객이 많은 지역임. 카이저뮐렌 지역과 Donauinsel이 서로 개방 및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노이에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활발한 친수활동을 하고 있음. 이는 당초 홍수방어 목적을 위해 건설된 Donauinsel이 오늘날에는 비엔나 시민의 핵심 휴양지로서의 역할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함
 - 카이저뮐렌 지역의 수변공간은 레스토랑, 바비큐 시설, 스케이트 보드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Donauinsel쪽의 수변공간은 태닝 등 일광욕을 위한 장소가 잘 마련되어 있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Donauinsel 전 구역에 걸쳐 잘 조성되어 있음. 카이저뮐렌 지역의 상류는 자연 친화적인 친수환경을 조성하였음
 - Donauinsel 상류에서서는 강의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2) 출처: [https://www.geschichtewiki.wien.gv.at/Neue_Donau\(2026.6.5.](https://www.geschichtewiki.wien.gv.at/Neue_Donau(2026.6.5.) 접속)

수 있었으며, 가동보 시설의 위는 도로로 개방되어 있어 Donauinsel과 카이저뮐렌 지역의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며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현장조사 사진



5. 도나우강 도나우 아우엔 국립공원 - Eigang-Wien-Lobau 일대 현장 조사

□ 개요

- 일시: 5월 10일(일), 09:00-18:00
- 장소: 도나우강 도나우 아우엔 국립공원 -Eignan-Wien-Lobau 일대
- 목적: 도시 인근 자연 범람원 조성 사례 조사 및 자연기반해법 적용 전략 관련 참고 자료 수집

□ 주요 결과

-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은 중앙 유럽에서의 최대 규모의 범람원(9,600ha)을 보전하고 있는 국립공원임. 199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보호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음
- 하천 재자연화 사업이 추진되어 도나우강의 본류와 범람원 지역이 연결되는 등 자연 범람원이 회복되었으며, 수변림의 훼손 활동을 중지하면서 수변림과 산림생태가 잘 보호되고 있음
- 현장조사 지역은 비엔나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 Eigang-Wien-Lobau 일대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비엔나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부는 원시적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구하도, 습지, 늪지대, 호수 등 다양한 수생 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자연림이 원시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공원 내에 탐방로가 다양한 경로로 마련되어 있어 자연생태 환경을 직접적이고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음. 숲길, 수변길, 습지 관찰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호수는 개방되어 있어 수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국립공원 산책로와 도나우강이 서로 개방되어 있어 국립공원과 도나우강의 상호 접근이 용이
 - 방문객 센터(wien-lobAU National Park House)에서 국립공원과 자연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
 - 통행로 외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개방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현장조사 사진

	
lobAU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 내부
	
탐방로	국립공원 내 호수(Dechantlacke)
	
탐방로(습지)	국립공원 내 습지
	
구하도에 형성된 호수(Panozzalacke)	국립공원 인근 도나우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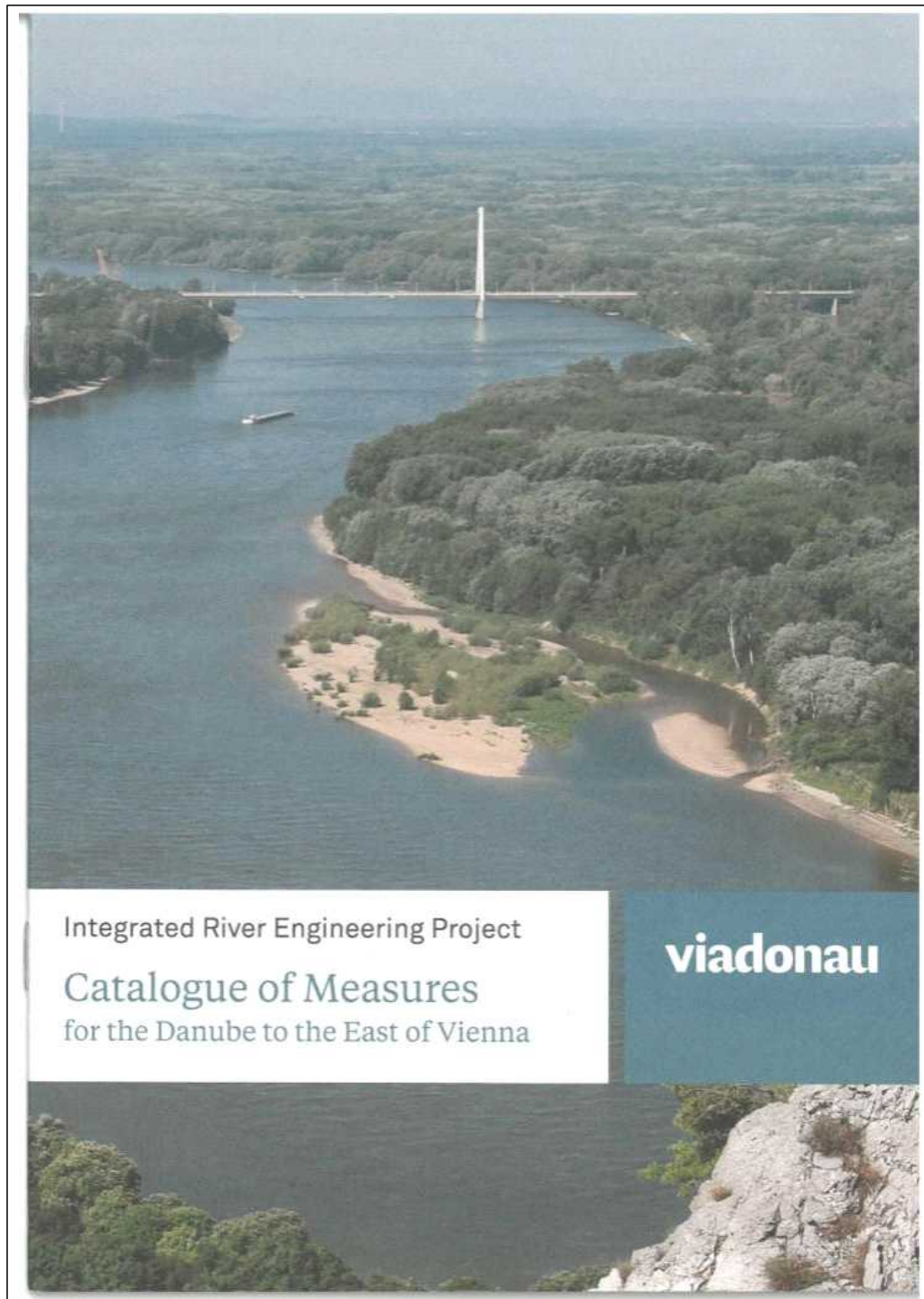
IV. 출장 효과

□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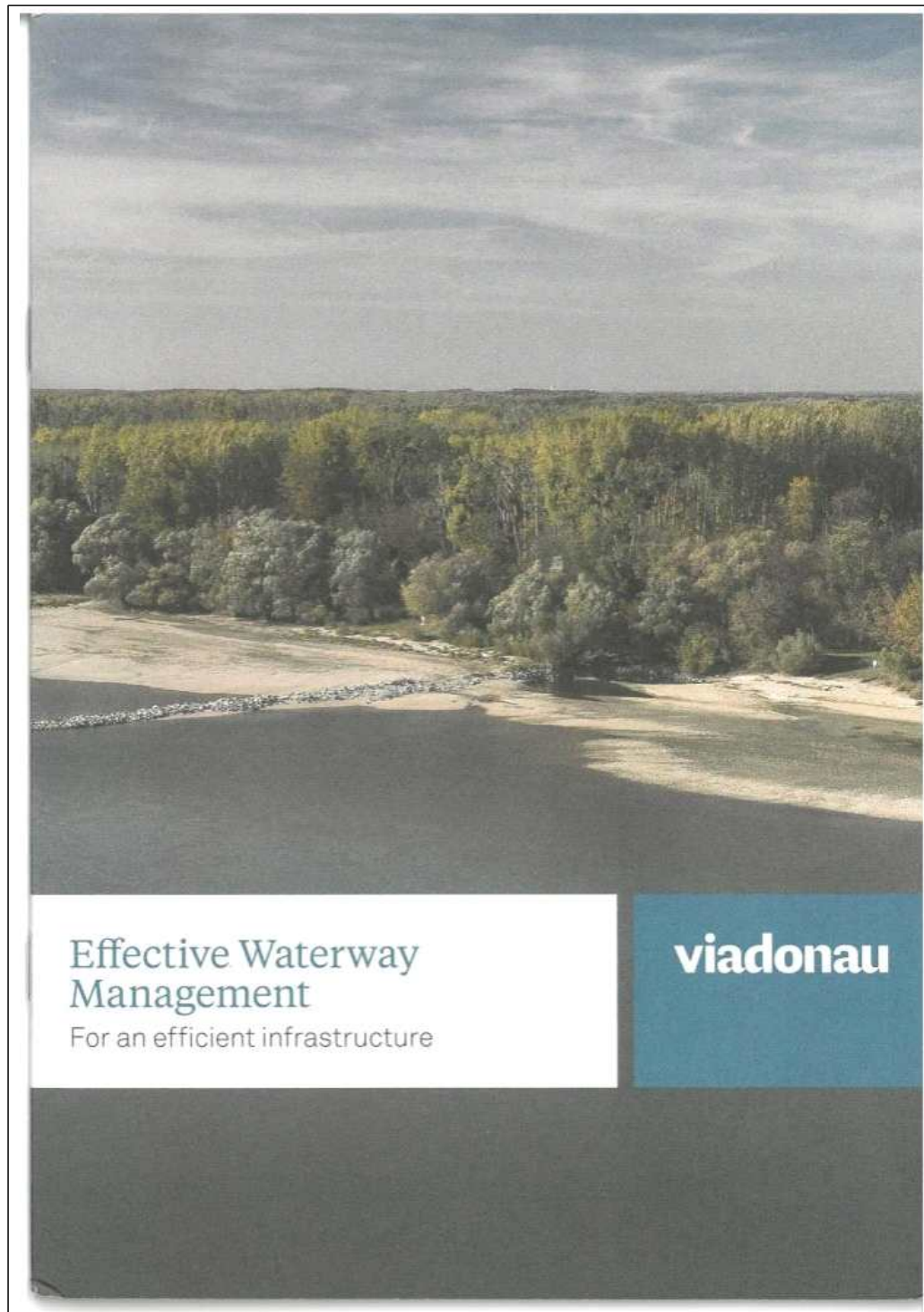
-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질적 완성도 제고 및 성과 확산
 - 세계적인 지구과학 학회인 EGU26에 참석하여 자연기반해법 적용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과제의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 수행 결과의 완성도를 제고함
- 최신 국제 연구 동향 및 기술 발전 현황 파악
 - 자연기반해법, 하천 복원, 홍수 관리, 수문·수리 분야의 글로벌 선진 기술 발전 현황과 최신 학술 동향을 심도 있게 습득하여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도출함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EGU26 학회 및 현지 기관(RiverWatch, viadonau) 방문을 통해 국제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들과 학술 교류 및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연구 고도화 및 향후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함
- 국내 하천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선진 시사점 도출
 - 유럽의 선진 하천 관리 체계 및 자연 범람원 복원 사례를 직접 파악하여,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 공간 관리 방향과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한 수공 시설물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V. 수집 자료

- viadonau 하천사업 카탈로그



○ viadonau 수로 운영 카탈로그



○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소개자료

Den Nationalpark entdecken.

Angebote für Schulen, Kindergruppen, Erwachsene & Familien

Nationalpark Donau-Auen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Tel. +43 (0) 2212/3555

Inhalt

Hinweise	3
Verhaltensregeln	4
Information & Buchung	5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7
Nationalparkhaus wien-lobAU	9
Bootstouren	11
Späthel	12
Themenexkursionen	14
Ihr persönlicher Ranger	15
Spezialprogramme in der Lobby	16
Meistertagsangebote	17

Herzlich Willkommen! Freier Fluss. Wilder Wald.

Der Nationalpark Donau-Auen ist ein Schutzgebiet für Tiere und Pflanzen, ein Ort der Umweltbildung und Forschung und ein Erholungsraum für Menschen.

Vollständige Naturerlebnisprogramme für Ausflugsgäste, Familien, Gruppen, Schulklassen und Kindergärten werden angeboten. Nationalpark-Rangerinnen und -Ranger begleiten Sie stets bei Ihren gebuchten Programmen.

Dieser Folder gibt einen kompakten Überblick zu den Exkursions- und Erlebnisangeboten, Führungen im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und Nationalparkhaus wien-lobAU, Spezialprogrammen sowie Meistertagsangeboten. Detaillierte Besuchsregeln, Termine, Kosten und Buchungsinformationen finden Sie stets aktuell auf www.donaueuen.at.

Die QR-Codes in jedem Kapitel dieser Broschüre weisen Ihnen den Weg zu den entsprechenden Online-Informationen.

Wir freuen uns auf Ihren Besuch.

Hinweise

Für Ausflüge ohne Führung steht das markierte Wanderwegenetz zur Verfügung. In den Besucherzentren erhalten Sie Kartenmaterial sowie weiterführende Hinweise. Alle Informationen finden Sie auch auf www.donaueuen.at.

Vorwiegend bei bewaldeten Waldwegen und in den Donauauen werden menschenleere Wege, die für die Natur ungestört bleiben sollen, ausgeschildert.

Alle Exkursionen finden prinzipiell bei jeder Witterungs- und bei Hoch- oder Niedrigwasser, Sturm, Gewitter oder Starkregen kann es zu kurzfristigen Änderungen der Programme und Routen kommen.

Achtung Bootfahrern & Bootfahrern: In den Donauauen sind motorisierte Fahrzeuge, die die Natur stören und einseitig befahrbare Bäume nicht bewässern. Den in Bootstouren Teilnehmenden sowie privaten Bootfahrern kann daher keine Sicherheit vor Kollisionen mit Booten und herannahenden Alken gewährleistet werden.

Hunde dürfen bei unseren Bootstouren und einigen Themenexkursionen nicht mitgeführt werden.

Wir weisen darauf hin, dass das Schiffsfahrergesetz Personen, die durch Alkohol beeinträchtigt sind oder aus anderen Gründen generell der Kontrolle nicht geeignet erscheinen, von der Teilnahme an Bootstouren ausgeschlossen werden können. Details finden Sie in unseren AGBs.

Für Personen und Bootfahrer sind entlang der Donauufer sowie der Nationalpark-Rangerinnen und -Ranger keine Haltungen überlassen.

Heßen Sie mit, die Natur zu schützen!

Sei fair!

- Raubbienen:** Benutzen Sie mit Ihrem Rasenmäher die markierten Rastplätze.
- Weggebot:** 100 km zweifelhafte Wege werden für die Natur gefährlich. Verlassen Sie diese nicht.
- Hunde an die Leine:** Leiten Sie Ihren Hund aus Rücksicht auf Wildtiere und Gäste stets an.
- Bootsfahren und Baden:** Halten Sie die Donau sauber. Vermeiden Sie das Baden in den Donauarmen und Bootstouren.
- Natur bewahren:** Regeln für die Erhaltung der Natur im Nationalpark Donau-Auen.
- Geocaching:** Regeln für das Geocaching im Nationalpark Donau-Auen.
- Videobewachung:** Das Nationalpark-Zentrum ist eine bewachte Zone. Vermeiden Sie das Fotografieren von Personen und Tieren.
- Stoppen:** Beachten Sie den Verkehr und die Sicherheit der Teilnehmer.
- Zellen verboten:** Das Zellen- und Internet-Verbot ist im gesamten Nationalpark geltend.
- Feuer:** Entzünden Sie keine Lagerfeuer und Zigaretten. Seien Sie bei Feuerbranden vorsichtig.
- Drohnen:** Die Befliegung des Nationalparks ist verboten.
- Müllvermeidung:** Bitte nehmen Sie Ihren Müll mit und entsorgen Sie ihn richtig.
- Pferdesport etc.:** Reiten und andere Aktivitäten sind in den Donauauen verboten.
- Veranstaltungen:** Die Durchführung von Veranstaltungen ist im Nationalpark verboten.

Für weitere Informationen betreffend Wegerecht und Verhalten zum Schutz der Tier- und Pflanzenwelt sowie Ihre Rechte im Nationalpark wenden Sie sich bitte an die Nationalparkverwaltung gemäß der Verfügung.

Information & Buchung

Für den niederösterreichischen Teil des Nationalparks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Tel. +43 (0) 2212/3555
info@schlossorth.at

21. März bis 30. September: tgl. 9 - 18 Uhr
1. Oktober bis 1. November: tgl. 9 - 17 Uhr
2. November bis 30. März: telefonische Auskunft Mo bis Fr (werktags) 9 - 17 Uhr

Nationalpark-Infostelle Schloss Eckartsau
Tel. +43 (0) 2214/2335-4309
info@nationalpark.at

22. März bis 30. April: tgl. 10 - 17 Uhr
1. Mai bis 31. August: Mo bis Fr 10 - 17 Uhr
1. September bis 1. November: tgl. 10 - 17 Uhr
2. November - 31. März: telefonische Auskunft Mo bis Fr (werktags) 10 - 18 Uhr

Für den Wiener Teil

Nationalparkhaus wien-lobAU
Tel. +43 (0) 1/4000-6695
info@nationalpark.at

Anfang März bis Ende Oktober: Mo bis So 10 - 18 Uhr
November bis Anfang März: telefonische Auskunft Mo bis Fr (werktags) 8 - 15 Uhr
Jahresaktuelle Öffnungszeiten finden Sie auf www.donaueuen.at.

Programme für Kindergruppen, Schulen, Horte und Kindergärten
Touren finden ab einer Mindestteilnehmerzahl von 10 Personen statt, wenn nicht anders angegeben.
Schüler: pro 10 Kinder ist eine Begleitperson gratis.
Kindergärten und Integrationsklassen: pro 5 Kinder ist eine Begleitperson gratis.

Buchen Sie Ihre Exkursion bitte bis spätestens 14 Tage vor dem gewünschten Termin.

Touren können auch in Englisch und Slowakisch durchgeführt werden. Nach Rücksprache in weiteren Sprachen.

Wir bieten Programme für blinde und sehbehinderte Menschen an. Bei Bedarf weitere Angebote für Menschen mit besonderen Bedürfnissen fragen Sie bitte nach.

Wir empfehlen folgende Ausrüstung:
Wetterungsgerechte Bekleidung, Regenschutz, feste Schuhe, Kopfbedeckung, Insekten- und Sonnenschutz, Getränke, Verpflegung.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Das Tor zum Nationalpark Donau-Auen

Das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bietet bei jeder Witterungs- und bei Hoch- oder Niedrigwasser, Sturm, Gewitter oder Starkregen kann es zu kurzfristigen Änderungen der Programme und Routen kommen.

Öffnungszeiten:
21. März bis 30. September: tgl. 9 - 18 Uhr
1. Oktober bis 1. November: tgl. 9 - 17 Uhr
Wintersonnens 2. November bis 30. März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2304 Ort an der Donau, Schloßplatz 1
Tel. +43 (0) 2212/3555
info@schlossorth.at, www.donaueuen.at

Nur 15 km von Wien Stadtgrenze.

Österreichische Anreise:
VOR-RegioBus-Linien 560, 562, 563 und 565.
Haltestelle direkt vor dem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Bitte um Verständnis, dass die Mitarbeiter des Hauses in den Ausstellungsräumen und auf der Schlossinsel nicht gestattet ist.

Programme im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Besuch für Individualgäste:
Führungen werden an Wochenenden und Feiertagen angeboten, der Besuch der Exkursions- und Erlebnisangebote ist täglich möglich. Keine Anmeldung erforderlich. Informieren Sie sich vorab über aktuelle Angebote auf www.donaueuen.at.

Hinweise: Für Gruppenbesuche legen wir eine eigene Broschüre mit passenden Angeboten auf. Wir beraten Sie gern.

Programme mit Führung für Schulen:
Ausbuchungstermin & Ausflugsdatum unterliegen Sie dem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auf Wunsch kombiniert mit Ausstellungen oder Ausstellungen. Nach individueller Terminvereinbarung.

Programme mit Führung für blinde und sehbehinderte Gäste:
Besuch auf dem Auerbühlengelände, Schlossinsel und kurze Auswanderung nach individueller Vereinbarung sowie witterungsabhängig zu freien Terminen.

Nationalparkhaus wien-lobAU

Das Nationalparkhaus wien-lobAU ist das Besucherzentrum für den Wiener Teil des Nationalparks Donau-Auen, die Lobau.

Naturerlebnisangebote sowie Schulbesuche werden hier informiert und betreut. Der weitläufige Naturerlebnis- und Pflanzengarten bietet viel Raum für Entspannung und Erholung. In der Ausstellung tropisch und im Auerwald die Lobau abwechslungsreich und spannend vorgestellt.

Öffnungszeiten:
Anfang März bis Ende Oktober: Mo bis So 10 - 18 Uhr
Wintersonnenszeiten finden Sie auf der Homepage

Nationalparkhaus wien-lobAU
Korn- und Landeshaus, Döblinger Platz
1220 Wien, Döblinger Platz
Tel. +43 (0) 1/4000-40495
info@nationalpark.at, www.np-haus-wien.at

Öffentliche Anreise:
Autobuslinie 62B bis Haltestelle Ruffnerstraße/
Ruffnerstraße, Fußweg 2 Minuten oder Autobuslinie 63A bis Haltestelle Neudorfbrücke, Fußweg 10 Minuten

Programme im Nationalparkhaus wien-lobAU

Besuch für Individualgäste:
Führung durch die Ausstellung tonAU während der Öffnungszeiten, mind. 6 Personen, Anmeldung erforderlich.

Programme mit Führung für Schulen:
Gegen vereinbarte Terminvereinbarung sind folgende Programme für Schulen und Kindergärten buch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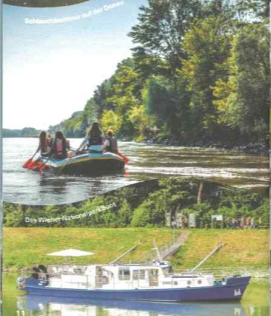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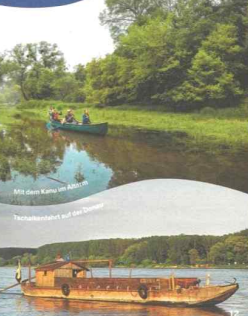
- Führung durch die Ausstellung tonAU
- Ausstellungsführung & kleiner Waldspaziergang
- Wiener Waldschule
- Lehrstuhl beim Nationalparkhaus wien-lobAU

Bootstouren

Um die Vielfalt der Fluslandschaft je nach Vorlieben zu erkunden, bieten wir unterschiedliche Bootstouren an. Manche dieser Exkursionen werden mit einem Spaziergang kombiniert, andere werden ausschließlich am Wasser abgehalten. Teils wird die Donau oder ein Seitenarm befahren, teils auch beide Gewässertypen.

Unterschiedliche Bootarten kommen dabei zum Einsatz, begleitet werden Sie stets von Nationalpark Rangerinnen und -Rang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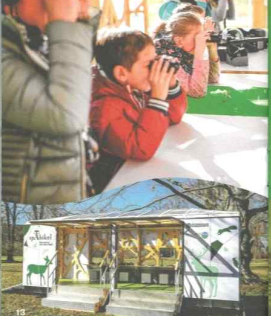
Genaue Informationen zu den Programmen inkl. Zielgruppe, Altersbeschränkungen etc. finden Sie immer aktuell auf www.donauauen.at.

Späthel

In diesem interaktiven Beobachtungsweg können Sie die Natur auf neue Art entdecken, ganz nach dem aktuellen 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Die Ausrüstung soll dort zum Einsatz kommen, wo die Sinneswahrnehmungen des Menschen ihre Grenzen finden.

Live dem Saitenspiel der Blume lauschen oder traktieren beim Kriebeln im Holz zuhören. Das Innere einer Baumhöhle mit einer Kamera erforschen oder mit Aussenraum-Geräusche der Natur zuhören – dies und vieles mehr kann der Auser hat in der Natur noch spannender und interessanter machen.

Themenexkursionen

Die vielfältigen Themen der Donau-Auen liegen dem Lauf der Jahreszeiten. Sie werden bei speziellen geführten Wanderungen und Workshops näher beleuchtet.

Diese zu feinen Terminen stattfindenden Exkursionen spannen einen Bogen vom Vogelzugswinter im Frühling und der Vielfalt an Wildkräutern über den Zauber der Sommerhitze, der herbstlichen Wertschätzung bis zum Überleben der Wildtiere in der Winterz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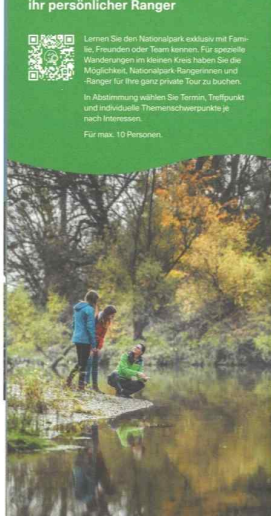
Nähere Informationen zu Terminen und Themen finden Sie jede Saison aktuell online.




Ihre persönliche Rangerin, ihr persönlicher Ranger

Lernen Sie den Nationalpark exklusiv mit Familie, Freunden oder Team kennen. Für spezielle Wanderwegen im kleinen Kreis haben Sie die Möglichkeit, Nationalpark Rangerinnen und Ranger für Ihre ganz persönliche Tour zu buchen. In Abstimmung wählen Sie Route, Teilpunkt und individuelle Themenschwerpunkte je nach Interessen.

Für max. 10 Personen.



Spezialprogramme in der Lobau

Mit dem Rad durch die Lobau
Radfahren in Wien verbindet auf erholsame Weise Naturerlebnis und sportliche Betätigung. Das geführte Tour startet beim Nationalparkhaus wien-lobAU und folgt den grün markierten Radwegen durch die Obere Lobau. Sie können Ihnen im Vorfeld das Cyclo-System Au mit seinen Besonderheiten näher. Mindestens eigener Fahrräder erforderl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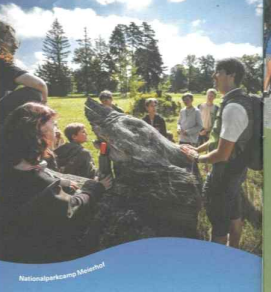
Naturschutz aktiv – Heilblindenpflege
Herbstliches Programm für Schulklassen: Die trockenen Heilblinden der Lobau beheimaten eine Vielzahl seltener Tier- und Pflanzenarten. Durch das Zuwachsen mit Sträuchern und Blumen sind diese Standorte in ihrem Bestand gefährdet. Daher wird sie gefragt, mit eigenen Kräften bei der Entbuschung aktiv mitzuwirken. Anmeldung erforderlich.



Mehrtagesangebote

Projekttage und Sommerferien bieten die Möglichkeit, als Gruppe eine erlebnisreiche Zeit in der Auenlandschaft zu verbringen. Ob in Eckartsau, Petronell-Carnuntum oder Groß-Enzersdorf – an allen drei Standorten steht das Naturerlebnis im Vordergrund.

Programme für Schulklassen und Erwachsenengruppen sowie Ferienangebote sorgen für vielfältige gemeinschaftliche Eindrücke.




- Nationalparkcamp Meierhof**
Nationalparkzentrum Donau-Auen der Österreichischen Bundesforste AG
2305 Eckartsau, Schlossgasse 2
Tel. +43 (0) 664 8189 14
linda.baur@bundesforste.at
www.donauauen.at/camps
- Haus der Jugend**
Nationalparkzentrum Donau-Auen
2404 Petronell, Lange Gasse 28
Tel. +43 (0) 664 8216130
info@hjd.at
www.hjd.at
- NationalparkCamp Lobau**
1220 Wien, Lobaustraße 100 bei Groß-Enzersdorf
Tel. +43 (0) 2249 28711
nc@lobu.at
www.lobu.at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Das Tor zum Nationalpark Donau-Auen
Das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bietet bei jeder Wetterlage interessante Programme für Schulen und Kindergruppen ebenso wie für Reisegruppen und Ausflugsgruppen. Multimediale Ausstellungen und Präparationen im Schlossgebäude werden durch das Außenmuseums Gelände Schlossort ergänzt. Dieses stellt Tiere und Pflanzen der Nationalparkregion vor, auf Kinder warten vielfältige Erkundungs- und Spielmöglichkeiten.

Nationalpark Rangerinnen und -Ranger begleiten Sie auf Ihrer Entdeckungstour zu Geschichte und Natur.

Öffnungszeiten:
21. März bis 30. September täglich 9 – 18 Uhr
1. Oktober bis 1. November täglich 9 – 17 Uhr
Winterperiode 2. November bis 30. März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2304 Orth an der Donau, Schlossplatz 1
Tel. +43 (0) 2212/3555
info@schlossorth.at, www.donauauen.at

Nur 15 km von Wien Stadtgrenze.
Öffentliche Anreise:
VOR Regionalbus Linien 550, 552, 553 und 543.
Haltestelle direkt vor dem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Bitte um Verständnis, dass das Mitführen von Hunden in den Ausstellungsräumen und auf der Schlossmauer nicht gestattet ist.




Programme im schlossORTH Nationalpark-Zentrum

Besuch für Individualgäste
Führungen werden an Wochenenden und Feiertagen angeboten. Der Besuch der Schlossmauer und des Aussichtsturms ohne Führung ist täglich möglich. Keine Anmeldung erforderlich. Informieren Sie sich vorab über aktuelle Angebote auf www.donauauen.at.
Hinweis: Für Gruppenvereine legen wir eine eigene Broschüre mit passenden Angeboten auf. Wir besten Sie gern.

Programme mit Führung für Schulen
Auchschülerinnen & -schüler unterliegen: Sie besichtigen Schlossmauer und Aussichtsturm, auf Wunsch kombiniert mit Ausstellungen oder Ausgestaltung. Nach individueller Terminvereinbarung.

Programme mit Führung für blinde und sehbehinderte Gäste
Besuch auf dem Aussichtsturm, der Schlossmauer und kurze Auswanderung nach individueller Vereinbarung sowie mehrmals jährlich zu feinen Terminen.




Nationalparkhaus wien-lobAU

Das Nationalparkhaus wien-lobAU ist das Besucherzentrum für den Wiener Teil des Nationalpark Donau-Auen, die Lobau. Naturerlebnis, Bildung sowie Schulklassen werden hier informiert und betreut. Der weitläufige Naturgarten mit Auenlandschaftsplatz und Picknickbänken bietet viel Raum für Entspannung und Erholung. In der Ausstellung tonAU und im AU-Kino wird die Lobau abwechslungsreich und spannend vorgestellt.

Öffnungszeiten:
Anfang März bis Ende Oktober: Mi bis So 10 – 18 Uhr
Winterferienzeitraum: Ende bis auf der Homepage

Nationalparkhaus wien-lobAU
Forst- und Landwirtschaftsbetrieb der Stadt Wien
1220 Wien, Dornbachweg 9
Tel. +43 (0) 1/4000-49669
nph@ma49.wien.gv.at, www.nph-lobau.at

Öffentliche Anreise:
Autobuslinie 92B bis Haltestelle Ruffinistraße/Biberhofweg, Fußweg 2 Minuten oder Autobuslinie 93A bis Haltestelle Naahofbrücke, Fußweg 10 Minu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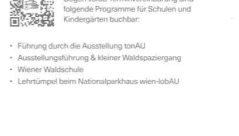



Programme im Nationalparkhaus wien-lobAU

Besuch für Individualgäste
Führung durch die Ausstellung tonAU während der Öffnungszeiten, mind. 6 Personen. Anmeldung erforderlich.

Programme mit Führung für Schulen
Gegen vorab Terminvereinbarung sind folgende Programme für Schulen und Kindergärten buchbar:

- Führung durch die Ausstellung tonAU
- Ausstellungsführung & kleiner Waldspaziergang
- Wieners Waldschule
- Lehrstuhl beim Nationalparkhaus wien-lobAU

○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소개자료 2

[illegible]